

사회복지 주간 동향(24.1.22.~1.26.)

1. 중앙정부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복지현안

‘5만원이 15만원’되는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

< 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신청 가능 >



- *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남
 -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
 -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 비용 지원 등에 사용 할 수 있음
- *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 작년까지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 것,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올해는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남
 -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소득·연령기준 확대 사항
 -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의료급여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교육급여수급자까지)(연령기준) 12세~17세→0세~17세
- *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이를 계기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17일(수) 15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준비를 위한 자산을 모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 청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2

중앙정부 복지현안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의 소망과 어려움’, 그 절실한 이야기를 듣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여섯 번째 이야기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 난임부부 간담회 개최(2.2.) >

- * 보건복지부는 2월 2일(금)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의 소망과 어려움, 난임부부들의 절실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여섯 번째 시간을 가짐, 이번에는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 패밀리스토밍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Family)를 결합하여 만든 용어로, 다양한 구성의 가구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시리즈 간담회·(추진 계획(안)) ①둘이서 살아요(무자녀가구, '23.12월) → ②한국의 띠띠파파(아빠육아 휴직자, '23.12월) → ③셋이서 살아요(1자녀가구, 1.9일) → ④여럿이 살아요(다자녀가구, 1.18일) → ⑤혼자서 살아요(미혼 가구, 1.23일) → ⑥아이를 기다리는 가족(난임부부)
 - 이날 간담회는 서울, 경기, 전남에 거주하는 난임 가족 5명과 한국난임가족연합회 관계자,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 간담회에서 난임가족들은 난임 진단 및 시술 등 임신·출산 준비 과정에서 난임가족들이 겪는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이야기함, 참석자들은 이를 경청하고 아울러 2024년 달라진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난임 극복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관련 의견을 교환

붙임1

2024년 난임시술비 지원 정책

*** 주요 정책**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복지부-광역시·도 협의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폐지('24.1월~)
 - (1차)'23.5.19, 2차'23.6.2, 3차'23.12.21)
 - '23.7월 9개 광역시·도 既 폐지(서울·부산·대구·인천·세종·경기·전남·경북·경남), '24.1월 8개 광역시·도 폐지(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제주)
-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 체외수정 칸막이 폐지 및 급여 횡수 확대, 미성숙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시 횡수 미차감 등 ('24.2월~)

현행			⇒	개선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체외수정	20회(+4회)
	동결배아	7회		(신선배아·동결배아 통합)	
인공수정		5회		인공수정	5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광역시·도와 협의(1월) 및 사회보장협의 완료 (1.31),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와 동일하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4.2월~)
- (난임부부 정신건강 지원)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 등의 심리·정서적 지원
 - (운영현황, '23년말) 중앙상담센터 1개소, 권역상담센터 7개소 설치·운영 중
- (상담센터 설치·운영) 지자체 공모 후 2개소 추가 설치·운영
 - (1~3월) 권역별 상담센터 2개소 공모 절차 진행 및 선정, (7~9월) 상담 센터 설치·운영
- (전국 확대)국정과제 '25년까지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전국 확대 추진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이후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24.4월)
 - 부부당 2회, 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24년 5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 해동 30만원(개수에 따라 상이), ▲ 시술(배아배양·이식) 50~70만원, ▲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40~50만원 (비급여로 병원간 편차 有)

붙임2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및 난임시술비 지원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23.7.27.)

저출산 현황

출생아 수 24.9만명
합계출산율 0.78명

난임시술 신생아

2.3만명
(총 출생아의 9.3%)

쌍둥이 이상 다둥이

1.4만명
(총 출생아의 5.4%)

아이 낳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에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필요

1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단태아	쌍둥이	세쌍둥이	네쌍둥이	...
지금은	100만원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다둥이 일괄 140
앞으로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100만원씩 증액

2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단태아	쌍둥이	세쌍둥이 이상
지금은	1명, 5~20일	2명, 10~20일	2명, 10~20일
앞으로는	1명, 5~20일	최대 2명, 10~20일	태아 수에 맞춰 최장 40일

3 난임시술비 지원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지원)



4 임신 준비 가임력 검진비 지원 (여성 10만원(난소기능검사 등), 남성 5만원 정액검사),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100만원, 2회)

5 고위험 임신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확대

	고위험 임신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한
지금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년 4개월
앞으로는	소득기준 철폐('24년)	2년('24년), 예외기간 인정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3

중앙정부 복지현안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로 이끄는 보건복지 정책

< 2024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

- * 보건복지부는 2월 2일(금) 서울시청타워(서울 중구)에서 2024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
 - 정부는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개 부처를 대상으로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제도를 도입하였고, 올해는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손윤희 청년보좌역(33세)을 자문단장으로 제1기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 저출산·연금 등 청년세대의 관심이 많은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 자문단원들과 활발히 소통하였으며, 자문단은 청년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공식창구로서 자리매김해옴
 - 올해는 손윤희 청년보좌역을 단장, 박정재 청년보좌역(29세)을 부단장으로 하여 신규 단원 5인을 추가로 선발, 20명의 단원들이 제2기 자문단 활동을 이어감
 - 이날 발대식에서는 자문단의 보건복지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 교육에 이어, 청년보좌역 주재로 24년도 한 해 자문단 운영계획 및 분과별 브랜드 과제 논의가 이루어짐
- * 앞으로 자문단은 3대 분과(인구·사회복지·보건의료)별로 하나의 연간 브랜드 과제를 선정하여 담당부서와 현장방문, 간담회, 청년 토크콘서트 등 지속 논의과제로 적극 참여하는 한편, 개별 단원의 직역·관심 분야 등에 따른 개인별 주요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할 예정('23년 4대 분과(청년복지·인구정책·사회복지·보건의료)에서 개편)
 - 아울러, 보건복지 분야는 물론 정책과 관련된 타 부처 자문단과도 내외로 활발히 소통하며 2024년에도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이어갈 계획

※ 보도자료 참조(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